

## 주요 이벤트 앞두고 혼조세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주요 지수 혼조세

•미 증시는 이번 주 CPI, 소매판매 및 대형 소매업체들 실적과 예산안 협상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전락후강의 모습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 장 초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투자심리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FOMO(fearing of missing out)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 국채수익률 소폭 하락 속 달러대비 엔화가치는 1년래 최저수준까지 하락. 장중 엔화가치 방어를 위해 일본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와 강도는 미미. (다우 +0.16%, 나스닥 -0.22%, S&P500 -0.08%, 러셀200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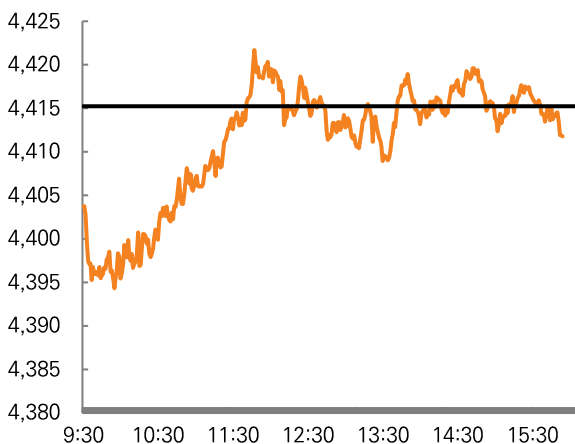
### 특징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에너지(+0.71%), 헬스케어(+0.57%) 등 5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유틸리티(-1.24%), 부동산(-0.82% 등 6개 업종은 하락.
- (상승) 테슬라(+4.22%)는 인도의 순수전기차(EV) 수입에 대한 세금을 향후 5년 동안 감면할 것이라 소식에 강세. 한편 일론머스크 CEO는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해 기가팩토리 건설 등 인도시장 확대를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 이외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은 캘퍼스가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지분 매입을 확대했다는 소식도 긍정적. 엔비디아(+0.59%)는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H200 신제품 공개하며 9거래일 연속 상승.
- (하락) 타이슨푸드(-2.83%)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과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시장 예상보다 낮은 전망을 발표하며 약세.

### 한국 증시 전망: 뒷심부족

•MSCI 한국 지수 ETF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는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55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상승. KOSPI는 0.2~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지난 6일(월) 급등이후 약세 흐름 이어가. 6일을 제외한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4일, 코스닥은 5일 연속 하락 기록.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9%, 7.7%나 하락.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7659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 4277억원, 개인 8504억원 순매수를 기록. 기관은 건강관리(-2,793억원), IT가전(-1,964억원), 반도체(-1,239억원) 등 순매도 기록. 국내증시는 수급 공백 속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에 따라 등락 거듭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03.76	-0.24	상해종합	3,046.53	+0.25
KOSDAQ	774.42	-1.89	홍콩항셱	17,426.21	+1.30
DOW	34,337.87	+0.16	인도센섹스	64,933.87	-0.50
NASDAQ	13,767.74	-0.22	유로스톡스 50	4,232.19	+0.83
S&P 500	4,411.55	-0.08	영국	7,425.83	+0.89
캐나다	19,712.12	+0.29	독일	15,345.00	+0.73
일본	32,585.11	+0.05	프랑스	7,087.06	+0.60


 변화 요인

##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미 증시는 이번 주 CPI, 소매판매 및 대형 소매업체들 실적과 예산안 협상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전약후강의 모습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 장 초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FOMO(fearing of missing out)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 국채수익률 소폭 하락 속 달러대비 엔화가치는 1년래 최저수준까지 하락. 장중 엔화가치 방어를 위해 일본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와 강도는 미미.

### # 이번 주 주요 이벤트

#### ①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시장의 관심은 오는 화요일(14일) 공개되는 10월 CPI로 쏠려. 헤드라인 CPI는 지난 달 기록한 전년동월대비 3.7%에서 둔화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다만 근원 CPI는 지난 달과 같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끈적한’ 물가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 키울 것으로 예상. 클리블랜드 연에서 추정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 역시 시장 예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특히 헤드라인 CPI의 전월대비 변화는 지난 3월 기록한 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다만 매년 10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비용 추정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물가 하방 압력을 키운 요인이 이번부터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 ② 소매판매 및 대형 유통 · 소매업체들 실적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발표되는 대형 유통 ·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연말 소비에 대한 가능성이 될 것으로 예상. 이 날 CNBC와 전미소매연맹(NRF)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판매는 전월 대비 0.08%, 음식점을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는 0.03% 감소했다고 밝혀. 실제 시장은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0.7% 증가에서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NRF는 11~12월 동안 예상되는 소비규모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9,573억 달러에서 9,6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021년 12.7%, 2022년 5.4% 증가에서 둔화한 것. 또한 지난 2년동안 보였던 연말 특수 고용이 올해는 전년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

14일(화) 홈디포, 15일(수) 타겟, 16일(목) 월마트, 메이시스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과 4분기 가이드언스를 통해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앞서 실적을 공개한 소매업체들의 경우, 높은 이자율과 학자금 대출 상황 재개 등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재량적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혀.

#### ③ 예산안 합의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지난 토요일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2단계(two-step) 패키지 방안을 제시. 지출 항목별로 1월 19일, 2월 2일까지 자금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 모두 제외.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핑퐁게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테슬라, 엔비디아 강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에너지(+0.71%), 헬스케어(+0.57%) 등 5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유틸리티(-1.24%), 부동산(-0.82%) 등 6개 업종은 하락.

**(상승)** 테슬라(+4.22%)는 인도의 순수전기차(EV) 수입에 대한 세금을 향후 5년 동안 감면할 것이란 소식에 강세. 한편 일론머스크 CEO는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해 기가팩토리 건설 등 인도시장 확대를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 이외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은 캘퍼스가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지분 매입을 확대했다는 소식도 긍정적. 엔비디아(+0.59%)는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H200 신제품 공개하며 9거래일 연속 상승. 해당기간 동안 20% 넘게 상승하며 지난 8월 3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493.55)에 근접. 보잉(+4.01%)은 대규모 수주 소식에 강세. 먼데이닷컴(+10.50%)은 양호한 실적과 연간 전망 상향에 강세. 클라우드스트라이크(+2.37%), 헬스캐털리스트(+9.99%), 깃랩(+1.34%)은 투자조건 상향 소식에 상승.

**(하락)** 타이슨푸드(-2.83%)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과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시장 예상보다 낮은 전망을 발표하며 약세.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일루미나(-5.67%)에 대해서 RBC캐피탈은 목표주가를 318달러에서 260달러로 낮춰. 워너브라더스 디스크버리(-2.37%) 역시 맥쿼리가 목표주가를 20달러에서 16달러로 낮춰.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리튬 가격, 2년래 최저

**(유가)** OPEC은 최신 보고서에서 경제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발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WTI기준) 배럴당 78달러를 상회. 그러나 미국의 기술린 선물 가격은 갤런당 2.2달러 미만을 하회하며 1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였고, 골드만삭스는 난방 수요 감소와 공급 및 재고 증가 영향으로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98달러에서 92달러로 낮춰.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이번 주 온화한 날씨와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락. 특히 이스라엘은 쉘브론에게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폐쇄된 주요 타마르 유전의 생산을 재개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집트의 천연가스 공급은 이달 들어 60%나 증가.

**(원자재)**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은 재고 증가와 낮은 수요로 인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인 톤당 15만 위안 아래로 떨어져. 주요 전방산업의 경제적 역풍의 영향 때문으로 재고 구입 지연 영향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뒷심부족

MSCI 한국 지수 ETF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는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8.55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상승. KOSPI는 0.2~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지난 6일(월) 급등이후 약세 흐름 이어가. 6일을 제외한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4일, 코스닥은 5일 연속 하락 기록.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9%, 7.7%나 하락.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7659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 4277억원, 개인 8504억원 순매수를 기록. 기관은 건강관리(-2,793억원), IT가전(-1,964억원), 반도체(-1,239억원) 등 순매도 기록. 국내증시는



수급 공백 속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에 따라 등락 거듭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천연가스 6%대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84	대형 가치주 ETF (IVE)	-0.20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35
소매업체 ETF (XLY)	+0.43	소형 가치주 ETF (IWN)	0.00
온라인소매 ETF (EBIZ)	+0.72	대형 성장주 ETF (VUG)	-0.05
미국 인프라 ETF (PAVE)	-0.03	중형 성장주 ETF (IWP)	+0.11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1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58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4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23	미국 국채 ETF (IEF)	-0.0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80	하이일드 ETF (JNK)	-0.18
바이오섹터 ETF (IBB)	-0.1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16	물가연동채 ETF (TIP)	-0.07
반도체 ETF (SMH)	-0.6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42.39	+0.71	-1.97	-6.42
헬스케어	1,478.30	+0.57	-1.05	-2.54
필수소비재	730.89	+0.37	+0.41	+3.56
경기소비재	1,284.31	+0.29	+1.03	+2.57
산업재	867.01	+0.09	+1.20	+0.70
소재	486.13	-0.14	-1.46	-0.53
커뮤니케이션	231.45	-0.20	+1.84	+1.29
금융	561.05	-0.34	+0.33	+1.64
IT	3,176.59	-0.54	+3.39	+6.04
부동산	213.66	-0.82	-1.54	-0.76
유틸리티	301.89	-1.24	-3.53	+0.3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8.26	+1.89	-2.71	Dollar Index	105.861	-0.05	+0.80
브렌트유	82.52	+1.72	-2.76	EUR/USD	1.0686	+0.17	-0.42
천연가스	3.20	+6.40	-1.13	USD/JPY	151.52	+0.11	+1.43
금	1,950.20	+0.67	-1.91	GBP/USD	1.2227	+0.03	-1.24
은	22.36	+0.35	-3.76	USD/CHF	0.9027	-0.02	+0.43
알루미늄	2,223.50	+0.38	-2.80	AUD/USD	0.6361	-0.09	-2.33
전기동	8,167.00	+1.64	-0.86	USD/CAD	1.3801	-0.05	+1.05
아연	2,553.00	-0.35	-0.78	USD/RUB	92.3349	+0.52	-0.39
옥수수	477.25	+2.75	-0.10	USD/BRL	4.9095	-0.61	+0.13
밀	579.00	+0.74	+0.65	USD/CNH	7.3065	+0.12	+0.24
대두	1,382.50	+2.82	+1.58	USD/KRW	1,316.80	+0.51	-0.42
커피	173.20	+1.55	+0.87	USD/KRW NDF1M	1,316.10	+0.00	+0.6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634	-1.78	-0.91	스페인	3.767	-0.60	-3.00
한국	4.007	+4.70	-5.00	포르투갈	3.431	-2.20	-1.70
일본	0.871	+2.10	-1.20	그리스	3.978	-0.30	-6.80
독일	2.713	-0.40	-2.60	이탈리아	4.563	-1.30	-8.1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